다산포럼

부자 나라지만 '약한 국가' 한국

김 동 춘
성공회대 NGO대학원장

정부가 제출한 2017년 예산 규모를 보면 정부 예산이 400조 원을 넘었고 복지비도 130조를 넘었다. 한국은 최근 20년 사이에 국가 예산 중 복지비 지출 액수는 물론 GDP 중 조세부담률이 가파르게 높아진 나라 중 하나다. 그런데도 한국은 아직 GDP 중 복지비 지출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저(低)복지 국가에 속한다. 1인당 소득 기준으로 봐도 스웨덴이나 독일은 1만 불을 넘었을 때 복지비 지출은 20%를 넘어섰으나 3만 불에 육박한 한국은 아직 5%에도 미치지 못한다. 더 심각한 사실은 한국의 GDP 대비 국가재정과 조세부담률(사회보장비 포함)도 OECD 평균에 10% 정도나 뒤떨어져 있고, 여전히 OECD 최하위 군에 속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뭘 의미할까? '저복지'도 큰 문제지만, '저(低)재정' 즉 국민총생산액 중에서 국가(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너무 적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국민이 재산, 소비, 근로소득 중에서 세금으로 내는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즉 한국은 부자 나라이기는 하지만 기업과 개인이 부자이고, 국가(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이 너무 적어서 재분배 정책 , 즉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말이다.

사람들은 우리 정부가 민간 경제활동에 깊이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란 국가는 매우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재정 규모로 보면 실제 한국은 '약한 국가'에 속한다. 실제로 개발독재 시절인 60~70년대에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매우 낮았다. 87년 민주화 이후 두 민주정부도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작은 정부', 탈규제, 민영화론이 득세하였고 이명박정부에서는 증세가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는다는 논리가 세를 얻어서 급기야 종부세도 폐지되고 법인세도 줄어들었다. 국가의 곳간은 비었으나 부자들은 웃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말기 300조 원 정도였던 국가부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 내년도 국가채무는 680조 원이 될 것이라 한다. 4대강 개발로 인한 수자원 공사의 부채 8조 중 2조4천억을 정부 재정에서 메울 것이라는 소식까지 들려 더 답답한 심정이다.

조세부담률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국가의 재정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려도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에서 크게 늘어날 연금, 복지, 의료비를 충당하기 어려울 것이 뻔한데, 지난 10여 년 동안 재정 규모를 뒷걸음치게 만들고 그나마 국가부채만 잔뜩 늘렸으니,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면 이보다 더 분통 터지는 일이 없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앞으로 한 세대 이상 지속될지도 모르는 엄청난 짐을 남겼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국가가 기업 지원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저성장 고령화가 돌이킬 수 없게 된 선진국의 문턱에 올라선 한국으로서는 재정 규모 자체, 그리고 그 중 복지 교육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여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고 사회적 통합에 더 신경을 기울여야 했다. 조세부담률 즉 재정규모를 늘리려면 국가(정부) 신뢰의 확보, 즉 조세 징수의 공정성과 지출에서의 투명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권의 민주성과 공공성이 보장될 때만 국민이 납세 의사를 가질 것이다.

OECD 국가 중에서 GDP 대비 재정 규모가 작고, 복지비 지출이 미미한 미국, 멕시코, 그리스 등은 하나같이 정치 불신이 높고, 기득권 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이 매우 취약한 나라들이다. 물론 성장이 지속되어야 세금도 걷힐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소득과 재산이 극도로 불평등해진 나라의 국민들이 소득세를 더 낼 여력이 있을까? 그리고 한국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관료들, 썩어 가는 4대강, 연일 터지는 국방 비리, 그리고 한진해운의 경우처럼 경영 실패로 인한 기업부채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지원한 일, 정권 홍보를 위해 혈세를 사용하는 것을 접하는 국민이 세금을 내려 할까?

'저(低)신뢰'와 관료 부패야말로 국가의 곳간을 비게 만들어 국가가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국가의 적'이다. 그렇다면 김대중·노무현 두 정부는 과연 어떠했나? 재정 확대의 비전이 없었나? 아니면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무너졌나? 앞으로 정권이 교체되면 달라질 수 있으려나?

청춘 톡·톡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준 여행

우리겨레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4년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아껴서 악착같이 모은 돈을 방학기간 내내 여행하는데 쏟았습니다. 두 번째 여행이어서 술술 잘 풀릴 줄 알았는데, 그렇게 생각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지는 여행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여행은 지난해 여행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았답니다. 정말로 꿈을 꾼 기분이랄까요?

지난 여행에 비해 정말 많은 나라와 도시를 방문했지만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프랑스의 '니스'라는 도시였어요. 니스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느끼게 해준 곳이었어죠. 니스 공항에 도착해서 시내로 가는 버스 창문 너머로 살짝살짝 보이는 푸른 하늘과 투명한 초록빛 바다, 싱그러운 야자수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 그 순간 저는 니스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첫눈에 반한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죠. 니스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에게 너무 고마워요. 나이, 사는 곳, 하는 일은 모두 다르지만 여행을 사랑하고 니스를 좋아한다는 점에서 마음이 꼭 맞아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들이죠.

저는 누군가를 만나면 반드시 니스 이야기를 해요. 니스의 만남과 첫눈에 반한 풍광을 자랑하지요. 행복이라는 게 뭐 별거 없는 것 같아요. 물질적인 선물을 받았을 때 느끼는 그런 행복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순수한 행복감에 젖어 마음이 편안했고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근심도 걱정도 없는 것.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아하는 곳에서 돗자리 깔고 소박하게 챙겨온 과일들을 꺼내서 나눠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것뿐이었지만 처음 느껴본 감정이었어요.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이 말을 나도 모르게 입밖으로 내뱉을 정도였으니까요.

니스의 추억을 자랑하면 종종 울컥하곤 해요.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도 말이에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끼게 해준 너무도 고마운 곳이거든요. 니스에서 만난 인연들과 아직도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답니다.

아무튼, 여행은 나를 좀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귀국하기 전, 하고 싶은 일들은 꼭 하면서 살기로 다짐했어요. 미래는 불투명하고 인생은 유한하잖아요? 한번뿐인 인생을 쳇바퀴 돌리듯 사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여행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제 인생의 모토는 '한번뿐인 인생, 하고 싶은 건 하면서 살자!'가 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현실을 모른다, 아직 어려서 그런다"고 쓴소리를 하죠. 제가 여행의 길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느꼈기 때문에 제 자신을 더 성장시키고 싶을 뿐이에요. 현실이라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단지 타인이 정해놓은 기준 아닐까요. 저는 그 틀에 갇혀 살아가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현실이 무엇인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저도 돈 때문에 포기했던 꿈들이 많아요.

여행하면서 가장 달라진 점은 '꿈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시도라도 해보자'는 마음가짐이 생겼다는 거에요. 단순히 여행을 하면서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아가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단지 한번뿐인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저에게 선물해 주고 싶은 것뿐이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현실이 무엇인가요? 돈, 취업, 아니면 결혼? '현실은 현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거에요. 돈보다 중요한 게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상상해봤어요. 내가 죽는 순간 뭐가 가장 아쉬울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도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막막한 생애 속에서 그것들을 이겨낼 무언가를 찾아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기며 행복하게 살아야하지 않겠어요? 나에게 그 무언가는 아마도 여행과 글, 사진이 될 겁니다. 거기에 즐거움을 함께 나눌 사랑하는 내 사람들까지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이게 사는 건지', '살아있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건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 말아요. 지금부터라도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을 놓고 자신에게 쉬는 시간을 주면 좋겠어요. 쉬는 시간을 통해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여러분이 행복이란 감정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한번뿐인 소중한 나의 인생이니까요.

기 고

지역 복지사업, 해남에서 희망을 본다

양 재 승
해남부군수

해남군 보건소는 요즘 하루가 멀다고 외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물론 중앙 정부, 미국, 일본, 싱가폴의 유력 외신들에 이르기까지 작은 군 단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출산율 기적'의 비결을 찾기 위해 발품팔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지난 8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해남군의 2015년 합계출산율은 2.46명으로 4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1.24명의 두 배에 육박하는 숫자로 국가적인 위기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인구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땅끝 해남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고장이라는 해남의 수식어는 단순히 출산의 문제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임산부와 어린이가 살기좋은 사회는 곧 남녀노소 누구나 살기 좋은 곳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해남은 최근 42번째 '땅끝보듬자리'를 개소했다. 땅끝보듬자리는 농어촌의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경로당과 같은 마을 공동 공간을 개조해 함께 생활하면서 외로움도 덜고 숙식도 해결할 있도록 하는 생활시설이다.

아직도 가족 같은 정이 남아있고, 공동체의 문화가 조금은 유지되고는 있지만 고령화와 급격한 인구감소로 어찌 보면 가장 위험군에 속해 있는 집단이 농어촌 마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노인인구가 30%에 가까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농어업군에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은 무엇보다 중요한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

해남군에서 2012년부터 특수시책을 통해 땅끝보듬자리를 조성, 매년 확대해 오고 있는데 전국 지자체는 물론 정부시책으로 이를 벤치마킹해 이제는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남 지역 최초로 개소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는 고용과 복지를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로 지난 1년간 구인·구직 상담 4,843건, 취업 829건, 긴급지원 서비스 연계 125건을 처리하는 등 취약 계층 근로자가 일을 통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공공예산 투입 없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고 있는 땅끝해남 희망더하기 사업은 민관 협력을 통해 정기후원, 물품제공, 재능기부 등 7784명이 참여하여 3억7400만 원의 후원금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 이는 전 군민이 한번쯤은 이웃 사랑을 위한 나눔에 동참해 보았다는 뜻이다.

해남군의 이런 저력은 이번 달 보건복지부의 전국 지자체 2015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전국 대상 수상으로 나타났다. 2013년과 2014년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에 이은 것이다.

해남군의 전국대상 수상은 거창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변화해 가는 농어촌 지역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의 고민에서부터 시작했다. 대도시에 필요한 복지 수요가 있듯 농어촌에는 농어촌 나 름의 복지 수요가 존재한다.

농어촌 가정의 산모가 농사철 집에서 산후조리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기 때문에 전남 1호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소하고, 농어촌의 어르신들이 허리가 굽어도 자신의 논밭을 지키며 고향에 살고자 하는 마음을 이해하기에 땅끝보듬자리를 마련해 드렸다.

누구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모르는 선량한 군민들의 바램을 땅끝해남 희망더하기라는 이름의 소박한 자리로 이끌었다.

통계청의 출산율 발표가 있던 날 언론에서는 일제히 해남의 사례를 대서특필했다. 한 신문의 사설은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 한다 하여 자존심 상할 일은 아니다라며 "심각해지는 저출산 해남군에서 답 찾아라"라는 제목을 내보내기도 했다.

관(官)의 복지정책이 만능일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해남에서 또 다른 희망을 만들고 있다. 지역 복지정책, 해남에서 답을 찾는다라고.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 說

패럴림픽 폐막… 그들의 도전은 아름다웠다

장애인 선수들의 올림픽인 2016 리우 패럴림픽이 12일간의 열전을 마치고 어제 폐막됐다. 북핵 위기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지진, 그리고 한가위 명절 분위기에 묻혀버린 느낌이 없진 않지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은 그들의 도전은 아름다웠다.

유도 100kg급에서 2연패를 차지한 최광근(29) 선수는 고교 시절 훈련 도중 상대의 손가락에 찔려 왼쪽 눈을 실명했다. 지난해 대한장애인체육회 직원이었던 비장애인과 결혼반지도 없이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던 그는 시상식 직후 아내에게 달려가 그때 못해 준 반지 대신 '금메달 선물'을 안겨 주었다. 그들의 눈물 어린 포옹은 우리 모두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탁구 선수 이브라힘 하마투(43·이집트)는 라켓을 입에 물고 묘기에 가까운 탁구 실력을 선보여 박수갈채를 받았다. 10세 때 기차 사고로 두 팔을 잃은 그는 비록 승리를 따내지는 못했지만 세계 각지에 있는 지체장애인들에게 용기를 안겼다.

호주의 '할머니 사격 선수' 리비 코스말라(74)는 장애와 나이의 한계를 극복했다. 이번 패럴림픽 최고령 출전자인 그녀는 선천성 척추갈림증으로 하반신이 마비됐지만, 여자 10m 공기 소총 부문에 출전해 손주뻘 되는 선수들과 기량을 겨뤘다.

전 세계 159개국에서 모인 4천342명의 영웅들이 참가해 저마다의 기량을 겨룬 이번 대회는 장애인 선수들이 자신의 신체적 한계에 도전했던 말 그대로 '인간승리의 드라마'였다. 차가운 편견과 차별을 이겨 온 그들의 몸짓 하나하나가 감동 그 자체였다. 자기 극복의 용기와 숭고한 열정에 찬사를 보낸다.

이제 감동의 드라마'를 밝혀 주었던 성화는 꺼졌지만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성원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다. 그들에게는 신체적 장애보다 차별과 멸시가 더 두렵고 끔찍하기 때문이다.

안전교육 강화로 농기계 교통사고 줄여야

해마다 농번기만 되면 농기계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어김없이 사고가 있었다. 지난 15일 트랙터를 몰던 80대 농부는 영광 국도에서 역주행하다 잇단 충돌 사고를 일으켜 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전남 지역은 농도이다 보니 농기계로 인한 사고가 많다. 한데 농기계 교통사고 사망자 역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남에서 농기계 교통사고 때문에 99명이 목숨을 잃었다. 농업 비중이 비교적 큰 경북(57명), 충남(47명), 경남(31명)에 비해서도 크게 웃도는 수치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367명이 숨졌는데 이 중 전남이 2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역의 급속한 고령화와도 관련 있어 보인다. 전남은 논·밭 등 경작지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편이지만 젊은이들은 대부분 도시로 떠나 노인들이 힘겹게 농사일을 맡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전남은 65세 이상 노령층이 전체 인구 190만여 명 가운데 40만여 명에 이를 정도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상태여서 상황은 더 어렵다.

아무래도 노인들은 기계를 다루는 손놀림이 빠르지 못해 응급 대처 능력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여기에다 요즘엔 농촌 지역 도로도 넓어져 과속 주행하는 차량이 많은 탓에 일단 사고가 나면 사망 확률도 높아졌다.

따라서 무엇보다 농민 스스로 사고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겠지만, 지방자치단체와 농정 당국은 농기계 조작 교육과 교통안전 계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일선 경찰은 파종이나 수확 등으로 농기계 사용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특별기간을 정해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에 경찰을 집중 배치하는 한편 도로 주행 농기계의 경우 식별 표식을 달아 주는 등 세심한 지원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지진 불감증

#지난 12일 밤,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소파에 누워 있었다. 갑자기 현기증이 일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거실 등이 흔들거리고, 수족관 물이 넘칠 듯 출렁이고 있었다. 직감적으로 말로만 듣던 지진이구나 느꼈다. TV를 켜 보니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관련 뉴스가 흘러나왔다. 45년 살면서 처음 겪는 지진이었다. 깜짝 놀라 우는 아이들을 달래서 안심시켰지만 탁자 밑으로 숨어야 할지, 밖으로 대피를 해야할지 몰랐다. 어떻게 해야 하나? 119에 전화를 걸었으나 먹통이었다.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단독주택에 사는 50대 B씨는 마침 경주 지진 뉴스를 보고 있었다. 잠시 건물이 부르르 떨었다. 4D영화 좌석에 앉아 있는 듯했다. 지진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베란다에 놓인 낡은 세탁기가 탈수 도중 심하게 요동치는 것처럼 느껴졌다. 때맞춰 주기적인 소음이 들렸기 때문이다. 마치 한 쪽으로 빨랫감이 몰린 세탁기가 마지막 탈수를 할 때 나는 듯한 소리였다. 뒤늦게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파에 의한 진동인 것을 알고 놀랐다. 내진 설계가 안 된 벽돌 주택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다.

지진 관측이 시작된 이후 최대 규모(리히터 5.8)의 지진이 지난 12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했다. 이번에야말로 대부분의 사람이 지진을 피부로 처음 느꼈을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안전처의 대처는 '준비된' 모습을 보여 주지 못했다. 광주 지역 일부 교육 현장의 모습은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안전불감증을 떠올리게 했다.

이제 지진은 바다 건너 남의 일이 아니다. 활성단층에 대해 새삼 알게 됐다. 조선시대에는 지진이 나면 '해괴제'(解怪祭)를 지냈다. 개인이 아닌 나라에서다. 당시 사람들은 지진이 왜 발생하는지 알 수 없었다. 지금은 지진에 대해 과학적으로 모두들 이해한다. 그래도 '괴담'이 떠도는 것은 불안하기 때문이다. 평상시 예행연습과 함께 철저한 상황별 '매뉴얼'이 대비책일 것이다.

일본에서는 지진 발생 시 전국적으로 10초 안에 경보 문자가 자동 발송된다고 한다. 공연 도중에도 지진 대피 훈련을 진행한다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사 회 부 220-0642
사 회 2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문 화 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